

깊은 물을 위한 노래

보 스톤-브래디

2024년 10월 20일

우리는 Songs of Ascent 시리즈에 속해 있는데 오늘은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문제가 당신을 깊은 물에 빠지게 할 때, 이 노래가 당신을 깊은 물에서 건져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노래입니다. 읽어보자:

1. 주님, 나는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2. 주님, 제 목소리를 들으소서. 당신의 귀가 자비를 구하는 제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3. 주님, 만일 주님께서 모든 죄를 기록하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4. 하지만 당신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5.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온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희망을 둡니다.
6.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7.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라. 여호와께는 변함없는 자비가 있으며, 그분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있느니라.
8. 그는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두 가지 주요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관련된 신과 그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짧은 노래에서 신의 이름은 여덟 번이나 언급되고, 매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의 이해 속에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노래의 첫 번째 줄에 나타나며 다른 모든 내용의 맥락을 설정합니다.

주님, 저는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 자비에 대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30:1-2

처음 네 단어를 보세요: **Out of the depths**. 이것은 강렬하고 감정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 학자 중 한 명인 로버트 알터는 이 용어가 "원형적 극명함"을 전달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바다의 심연"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이는 다시 죽음의 영역을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죽음의 직전에서, 시편 기자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Walter Brueggemann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곳의 깊은 곳은 깊은 물입니다. 시인은 설 곳이 없어서 혼돈의 물에 압도될 위험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이 우리 삶의 바닥이 떨어지는 순간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 몇 명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안타깝지만, 더 깊은 순간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으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은밀히 알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공유하는 보편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성 중 안젤리나 졸리와 공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재능이 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을 피하는 방식으로 부유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방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고 밝혔을 때, 그녀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실을 경험한 거의 모든 인간의 고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공유된 고통의 근거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 모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편이 -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정말로, 고통에 존엄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거나 그 찡그린 얼굴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실제보다 작다고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더 큰 고통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 당신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려는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겸손. 둘째,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희망.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는 이걸 알아낼 수 없고,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어요. 희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응답할 만큼 신경을 쓴다는 의심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요.

이것은 우리를 이 시편의 성격 조각으로 이끕니다. 이 매우 짧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덟 번이나 불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그가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가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리더에 대해 논의할 때 종종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합니다

주방을 리모델링하려면 건설업체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도시에서 가장 잘하는 훌륭한 건설업체가 있다고 말했는데, 30% 정도는 돈을 받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요. 아니면 "이 사람은 일을 잘하지만, 십 대 딸과 혼자 두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면... 기술은 덜하지만 성격이 더 좋은 사람에게로 넘어갈 겁니다.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내 경험에 따르면 고난을 겪고 나아지는 사람들과 쓰라린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시편 130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헌신하는 이 신의 성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제공합니다. 각 줄은 그들에게 신이 믿을 수 있는 신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저 기술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의롭고 충실하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은 들으신다.

- 하나님은 세무 감사관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참되십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 신은 들으신다.
 - 신의 계시.
 - 신신례의 말씀

주님, 저는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 자비에 대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30:1**

히브리어로 이것은 지적이고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소음과 휴대전화, 끊임없는 방해가 있는 세상에서 우주의 신은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멈추십니다. 그것은 그가 가까이 계시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제게는 이해하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차피 신이 듣지 않으신다면 왜 신에게 부르짖습니까? 기도의 반대편에 아무도 없다면 왜 기도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니까? 우리가 신에게 절박한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것은 신앙의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들으십니다. 그는 세심합니다.

- 신은 들으신다.
- 하나님은 세무 감사관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 신의 계시.

주님, 만일 당신이 죄를 기록하신다면,
주님,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시편 130:3-4**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는 용서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 신은 들으신다.
- 하나님은 세무 감사관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참되십니다
- 신의 계시.

- 신신례의 말씀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온 존재가 기다리고,
그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시편 **130:5**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의 발이 달거나 설 수 있는 견고한 장소는 없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다윗은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만큼 훌륭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험되고 검증되었으며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의문과 두려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원하는 결과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데, 그 말씀은 결코 깊은 물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약속하지 않지만, 항상 그분이 깊은 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 신은 들으신다.
- 하나님은 세무 감사관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참되십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께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고, 그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있느니라. 시편 **130:7**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에 붙은 라벨을 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완전한 구원. 이것은 우리의 이빨로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간신히 구원하시거나 마지못해 구원하시거나 좌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풍부하게 구원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며 그 개념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생소합니다. 저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변함없는 사랑을 묘사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항상 충분하며 항상 치유합니다.

- 신은 들으신다.
- 하나님은 세무 감사관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참되십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시편 **130:8**

그는 우리를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구해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영망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경향.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우리의 자립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때 도망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

신의 성격의 이 부분은 그의 끊임없는 근접성에 대해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나이까?

내가 당신의 면전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깊은 곳에 내 자리를 마련해도 당신은 거기에 계십니다.시편 **139:8**

나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도 장래도 권세도 높이도 깊이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38-39